

위기상황에서 노조의 선도적 활동으로 전 조합원 결집 계기

KT 아현사옥 화재는 예기치 않게 고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에게 안타까운 마음과 여론이 일어 회사로서는 큰 위기를 겪은 사고였다.

그러나 추운 날씨에 그늘음과 분진이 난무하는 화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작업에 참여한 조합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은 물론, 노사가



가 함께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하게 복구해낸 과정에서 뭉클하고 감동적인 장면들 또한 이어졌다. 모든 구성원이 위기의 상황에서 내 일터요, 직장인 회사를 생각하고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분투하고 결집한 마음은 크고 단단해져 향후에도 회사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계기와 동력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무엇보다 부정적 이슈로 내몰릴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먼저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보다 피해부터 복구하고 향후 원인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신속한 복구와 신뢰회복’에 매진했다.

복구작업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도록 선도하고 헌신적으로 일을 지원하는 것이 진정 국민과 고객들을 위한 일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화재사고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과제는 많다.

우선 복구 이후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의 규모와 내용이 상당기간 쟁점으로 부각될 것에 대비해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및 시설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통신요금 규제 위주의 통신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정부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아현사옥 화재, 전사적 역량으로 신속복구, 신뢰회복!

KT노동조합 비상대책반 주요 활동

11월 24일(토)

- 아현국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발생, 10시간여만에 화재진압 완료
 - 서울시 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마포구 및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 통신장애 발생
- 사고 이후 KT그룹 임직원 총 1,100여명 철야교대 복구작업 참여
 - 피해구간 관로에서 지하 광케이블을 지상으로 우회 신속한 복구 및 서비스 장애구간 최소화

11월 25일(일)

- 김해관 위원장 긴급복구현장 찾아 조합원 격려
 - 성명서 발표, <KT아현지점 화재사고, 신속한 복구와 신뢰회복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11월 26일(월)

- KT노동조합, 화재사고 비상대책반 가동
 - 비상대책반 천막설치, 중앙본부 및 강북지방본부 중심으로 상시적 지원활동 개시

11월 27일(화)

- 소식지 '특별호' 발행 <노사모두가 힘을 합해 신속복구 신뢰 회복합시다>
 - 수도권 4대 사옥 및 전국 지부단위 출근선전전 전개
 - 김해관 위원장 등 복구현황 파악 및 조합원과 협력사 임직원에게 식사 등 배식지원

11월 28일(수)

- 평균 기준 복구율 96%기록
-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및 IT연맹 위원장, 화재현장 방문 격려
- 지방본부 위원장단 등 전국에서 지원물품, 격려메시지 전달

11월 29일(목)

- 지역주민 및 단체에서 물품 지원

11월 30일(금)

- KT그룹노조협의회 그룹사노동조합 위원장단 격려방문